

프랑스 대표 관광도시 투르(Tours)가 한국으로 물든다. 제2회 코리안 '투르' 페스티벌 개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코리안 투르 페스티벌 통해 한국 전통문화부터 K팝·웹툰·드라마까지 다채로운 한국 문화의 매력 선보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은 투르시 및 투르 에벤느망이 개최하는 제2회 코리안 투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월 27일(금)부터 3월 1일(일)까지 사흘간 투르 컨벤션 센터 '팔레 데 콩그레'에서 진행된다. *투르 에벤느망(Tours Événements): 투르시와 투르 메트로폴 발 드 루아르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과학·경제·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음.

프랑스 중부 지역의 대표적 'K-컬처' 거점으로 도약

지난해 처음 개최된 '코리안 투르 페스티벌'에 약 1만 1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 투르 에벤느망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행사 프로그램을 더욱 다채롭게 구성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한국 문화 축제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제2회 축제는 약 6,000㎡(약 1,800평) 규모의 공간에서 관객이 직접 K팝, K뷰티, K푸드, 드라마, 패션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된다.

인기 K팝 솔로 아티스트 기수(KISU)와 실력과 그룹 STARSEED'Z가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며, 현지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K팝 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관객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국 관련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 초청 사인회를 비롯해 K뷰티, K패션, 문학, 여행, 일러스트레이션, 게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테마의 부스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생동감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프랑스 현지 선호도가 높은 한국의 대

표적 길거리 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K-푸드존을 마련함으로써,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문화원 담당자는 "제2회 코리안 투르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프랑스 관객들에게 더욱 깊이 있게 소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본 축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지 관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영감을 전하는 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 포스터

담당 부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담당자	영화, 축제	김지인 (+33 01 4720 8415)
		담당자	언론홍보	이성은 (+33 01 4720 8415)





▲ 제 2회코리안 투르 페스티벌 공식 포스터